

내포 가야산 함께 걸으며 부처님의 뜻을 느낍니다

제5회 '백제의 미소길 걷기 행사' 가야사에서 서산마애삼존불까지 순례

조계사와 수덕사의 '내포 가야산 성역화' 협력은 불교계에 잔잔한 화제를 낳았다. 두 사찰이 사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8일 가야산에서는 '백제의 미소길 걷기 행사'가 열렸다. 스님과 재가자 등 600여 참가자들은 가야사에서 보원사까지 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가야산 성역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된 가야산지는 예산군과 서산시 경계에 있는 가야산 석문봉의 동쪽 골짜기에 있는 절터다. 당초 이곳에는 가야사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자신의 아버지



행사 참가자들이 서산 마애불 앞에서 법회를 열고 있다.



'백제의 미소길'을 스님과 재가자들이 함께 걸으며 내포 가야산 성역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남연군의 묘를 이장할 곳을 찾던 중 가야산지가 명당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가야산을 불태워 없애버린 뒤 남연군 묘를 이장했다. 불교계로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가야산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걷기 행사는 그동안 수덕사가 주최해왔으나 올해는 조계사가 성역화 활동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조계사, 화계사, 호암사, 미타사, 옥천암, 춘천 정법사 등 수도권 불자들이 대거 합류했다.

수덕사 대종스님과 신도들은 조계사 등 수도권 불자들이 도착하자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했다. 이들은 서로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내포 가야산 성역화와 보원사 복원 등을 위한 한마음을 느꼈다.

걷기 행사에 앞서 가야산터에서는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 수덕사 총무국장 지오 스님은 '백제의 미소길 걷기 행사'의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옥천암 신도회 명예회장 천연화 보살은 수덕사측에 내포 가야산 성역화와 백제의 미소길 행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내포가야산 성역화추진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인 수덕사 주지 지오 스님은 "관동도로를 생태탐방로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사부대중의 힘이 컸다. 가야산 성역화를 위한 활동에도 사부대중이 소명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공동준비위원장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은 "남연군 묘는 미움보다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걷기 행사가 원만히 끝나 국민들이 부처님의 미소를 떠올리며 용서를 배우는 성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 후 참가자들은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외치며 걷기 대회를 무사히 마칠 것을 다짐했다. 산행 중

가야산 불태워 남연군 묘 조성 참가자들 한마음 성역화 다짐

비를 마친 참가자들은 스님들이 앞에서 길을 걷고, 재가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600여 명이 참가한 행렬이 산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법향을 찾아 떠나는 순례단의 풍모가 느껴졌다.

보원사지 발굴 부처님께 참배

5km를 걷는 동안 참가자들은 가야산에 깃든 역사성과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며 발걸음을 옮겼다. 참가자들은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함께 참가한 도반들의 땀을 닦아 주고, 물과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한 시간여 정도를 걷자 참가자들은 산 정상에 도착했다. 산 정상에서는 더위에 지친 참가자들을 위한 수박이 한 상 가득히 마련돼 있었다. 무더운 날씨와 산행을 지친 상태에서 먹는 수박은 산해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맛이였다.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1시간여 정도를 걸어서 보원사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사적 제316호로 지정돼 있고, 보원사지 부도는 보물 제105호로 지정돼 있다.

가야산 서북쪽에 위치한 보원사지는 통일 신라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절터에서 발굴된 금동불입상은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백제 불상으로 추정돼 보원사가 6세기 중엽에 창건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 하고 있다. 최치원은 <법정화상전>에서 보원사가 화엄 10찰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서산시는 2006년부터 보원사지 발굴 작업에 착수, 현재까지도 계속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10세기 무렵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석조(보물 제102호)와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5층 석탑(보물 104

마애불앞서 첫 공식법회 봉행 설정 스님, 성역화 의미 강조

호), 법인국사보승탑(보물 제105호), 법인국사보승탑비(보물 제106호)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물과 초석 등이 남아 있다. 또한 1968년에는 백제 시대의 금동여래입상과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이 각각 발견됐다.

참가자들은 보원사지 발굴현장과 현재 남아 있는 문화유물들을 둘러본 뒤 이곳에서 출토된 고려철불좌

상과 철조여래좌상의 패불 앞에서 참배를 올렸다.

서산마애삼존불 앞 첫 공식 법회

참가자들은 다시 마애삼존불을 향해 길을 나섰다. 서산마애삼존불은 백제 말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보원사지 입구 좌측 가야산 고란사 왼쪽 바위에 조각돼 있다. 이 불상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미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백제의 미소'로 알려져 있다.

마애삼존불은 마애불 전래 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많은 마애삼존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산시는 마애삼존불이 국보 제84호라는 이유로 일체의 종교적 행사를 금지해왔다. 정경 스님 등이 꾸준히 마애불을 찾아 기도를 올리며 부당성을 지적하자 올해 처음으로 법회가 허용됐다.

보원사 기도처인 마애삼존불에서는 옥천암 육법공양팀의 준비로 육법공양을 올리고 마애삼존불과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애불 앞에서의 역사적인 첫 법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에 설렘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마애삼존불 법회에서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우리 문화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남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찬란했던 문화를 지켜야 한다. 가야산의 전통과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자"고 강조했다.

글 = 박기범 기자, 사진 = 박재완 기자

백제의 미소길은...

백제의 미소길은 가야산에 100여 개가 넘는 사찰이 있던 조선시대에 선방 수행승들이 포행을 하던 길이었다. 서산과 예산에 거주하던 주민들도 불교교화를 위해서로 왕래하던 길로 이용했다.

충청남도는 이 길을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를 하나로 잇기 위해 가야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 계획이었다.

관광객들이 가야산을 쉽게 차로 이동해 양쪽의 문화재를 손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길을 도로화 할 경우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생태와 역사의 보고로 불리는 가야산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한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이 관동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노력 끝에 2009년 충청남도는 관동도로 계획을 철회하고 생태탐방도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면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뵈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야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야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